사진 · 글 | 황석선

시골 오일장엔 사려는 이보다 파는 이가 더 많다.
꼭 무얼 사야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
꼭 팔아 이문을 남기겠다는 사람도 없다.

요즘처럼 차가운 날씨엔
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잔이면 그만인데
그간 지낸 이야기 하다 보면,
해 짧은 시골장은 금새 파장이 되고
국밥집 주인아주머니의 살가운 인심만 남는다.

〈경남 합천〉